

좌완 불펜 이준영 잡았다…KIA, FA 첫 단추 끼웠다

KIA, 내부 FA 이준영과 3년 총액 12억원 계약 체결

남은 최형우·양현종·조상우와 담판…오프시즌 향방 가를 변수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좌완 불펜 이준영을 붙잡으며 내부 FA 단속에 첫 단추를 끼웠다.

스토브리그 초반 흔들렸던 전력 구상은 일단 한숨 돌렸고, 남은 세 명과의 협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KIA 구단은 지난 22일 이준영과 계약 기간 3년에 계약금 3억원, 연봉 6억원, 인센티브 3억원 등 총액 12억원에 FA 계약을 맺었다.

2015년 2차 4라운드로 KIA에 입단한 이준영은 2016년 1군 무대에 데뷔한 뒤 8시즌 동안 통산 400경기에 출장해 277이닝 13승 8패 2세이브 67홀드 평균자책점 (ERA) 4.84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시즌 연속 50경기 이상을 소화하며 팀 마운드를 묵묵히 떠받쳤다.

지난해 한국시리즈에서는 4경기에 출전해 1홀드를 챙기며 팀 통산 12번째 우승에도 크게 기여했다. 올 시즌엔 57경기에서 3

승 1패 7홀드, ERA 4.76으로 다소 내림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팀 내 좌완 불펜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다.

좌완 자원이 귀한 리그 현실에서 그는 팀 불펜의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다.

이준영은 “첫 FA 계약인데 좋은 제안을 해준 구단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나의 가치를 인정해준 것 같아 뿌듯하다. 내년에도 챔피언스 필드 마운드에 서서 KIA 팬들의 응원을 다시 들을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많은 경기에 나가는 것이 나의 장점인 만큼 그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비시즌 동안 몸을 잘 만들겠다”며 “어느덧 데뷔 12년차가 되는데,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IA 심재학 단장은 “이준영은 좌완 스페셜리스트로 제 역할을 꾸준히 해온 선수이고, 묵묵히 제 역할을 다 하며 팀 내 어린 투수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준영이 다음



이준영과 심재학 단장이 FA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시즌에도 팀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제 KIA의 남은 내부 FA는 모두 3명이다.

당초 KIA는 총 6명의 내부 FA에 대해 ‘전원 잔류’를 방침으로 정했다.

팀의 상징이자 베테랑인 최형우와 양현종, 주

전 유격수 박찬호, 필승조의 축 조상우, 좌완 이준영, 백업 포수 한승택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스토브리그 초반부터 계획이 차질을 빚었다. 내야와 포수 각 1명이 전력에서 빠져나갔다. 먼저 수비의 핵심인 박찬호가 지난주 두산과 4년 총액 80억 원에 계약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시즌 그의 공백을 얼마나 잘 메우냐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여기에 베테랑 한승택마저 1군로 새 등지를 트면서 구단의 마음은 급해졌다. 다행히 ‘팀 1호 계약’으로 이준영을 붙잡는 데 성공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릴 수 있었다.

다만 여전히 최형우, 양현종, 조상우와의 협상 마무리가 과제로 남아 있다. 모두 KIA의 핵심 전력인 만큼 내년 시즌 제2야를 위해선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 만약 이탈자가 더 생긴다면 구단의 전력 재편 밀림은 크게 어긋날 수 있다.

이미 2차 드래프트로 마운드와 내야를 보강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약점을 메우는 수준에 그친다.

이번 주 예고된 박찬호 보상선수 선택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결국 내부 FA 협상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2026시즌 ‘전력의 배대’를 가르는 중요한 고리다. /주홍철 기자

‘셔틀콕 킨’ 안세영에게 “적수는 없다” 호주오픈도 제패

여자 단식 최초 시즌 10승 ‘신기록’

32강부터 결승까지 무실세트 완승

배드민턴 ‘세계 최강’ 안세영(삼성생명)이 호주오픈을 제패하고 여자 단식 선수 최초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은 23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500 호주오픈 여자단식 결승에서 인도네시아의 푸트리 쿠수마 와라다니(7위)를 2-0(21-16 21-14)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올 시즌 14번째 국제 대회에서 10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여자 단식 선수가 한 시즌에 10승을 거둔 것은 안세영이 처음이다.

다음 달 열리는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에 출전하는 안세영은 이 대회에서도 우승할 경우, 2019년 일본 남자 선수 모모타 겐토가 세운 단일 시즌 최다 우승 기록인 11승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2022년 호주오픈 챔피언인 안세영은 이번 대회 내내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32강부터 결승까지 상대에게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고 모두 2-0으로 완승했다.

이날도 안세영은 1게임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앞서 나갔다.



23일 열린 호주오픈 여자 단식에서 시즌 10번째 우승을 확정지은 안세영이 트로피에 입을 맞추고 있다. /AFP=연합뉴스

10-8에서 4연속 득점을 허용하며 잠깐 흔들렸지만, 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안세영은 15-16에서 곧바로 6점을 연달아 따내며 1게임을 가볍게 이겼다.

2게임 초반에는 접전이 이어졌지만, 안세영은 9-10으로 밀리던 순간 5점을 내리 쏟아내며 점수 차를 벌였고 연속 득점을 이어가며 승

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올 시즌 안세영은 3개의 슈퍼 1000 시리즈(말레이시아오픈·전영오픈·인도네시아오픈), 6개의 슈퍼 750 시리즈(인도오픈·일본오픈·중국오픈·덴마크오픈·프랑스오픈·호주오픈)와 슈퍼 300 대회 오를레앙 마스터스에서 우승했다. /연합뉴스



이범호 “훈련량 많은 캠프 소화 만족”

KIA, 마무리캠프 마치고 오늘 귀국

일본 오키나와에서 마무리캠프를 진행한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KIA는 지난 4일부터 오키나와에서 강도 높은 체력훈련과 기술훈련을 병행하며 기본기 강화를 목표로 담금질을 이어왔다. 이번 캠프에는 2025년 신인선수 가운데 야수 3명이 참가해 프로 데뷔를 위한 첫 준비를 마쳤다.

특히 새로 합류한 김지용, 고영민, 김연훈, 타카하시, 나이트 코치가 선수단을 지도하며 호흡을 맞췄다.

캠프를 총괄한 이범호 감독은 “어느 해보다 훈련량이 많은 마무리캠프였고, 모든 선수들이 밝은 표정으로 훈련을 잘 이겨내줘 만족스러웠다. 기술훈련과 함께 리빙훈련을 많이 시키면서 체력 강화에 힘썼다”며 “오선우와 한준수 등 1군 경력이 비교적 많았던 선수들이 더 발전했고, 신인 김민규, 박종혁, 한준희도 나날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규성이 캠프 주장으로서 선수단 분위기를 밝게 잘 이끌어줘 고맙게 생각한다. 코칭스태프와 선수들 모두 수고 많았고, 지금의 훈련량이 헛되지 않게 비시즌을 잘 보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홍철 기자



지난 21일 열린 제19회 광주시 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에서 참가자들이 화합 경기로 치러진 바구니 피라미드 쌓기를 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행규회 제공>

빛고을 장애인체육인 한마당 축제 성료

제19회 광주시 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 광산구 ‘기쁨상’ 수상

빛고을 장애인생활체육인들의 화합한마당 축제인 제19회 광주시 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이 지난 22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5개 자치구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 1천70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축전은 뉴 스포츠대회(레이저사격 등 10종목), 화합 경기(실내조정 등 6종목), 종목별 어울림대회(탁구 등 7종목)로 나뉘어 치러졌다.

특히 지난 21일 열린 개막식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임택 동구청장 등이 5개구 선수단

과 함께 실내 조정 경기에 직접 참여해 화합과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화합경기(6경기)에서는 광산구가 1천600점을 획득해 ‘기쁨상’을 수상했고, 1천400점을 획득한 북구와 남구가 각각 ‘우정상’과 ‘으뜸상’을 수상했다.

한편 광주시 장애인생활체육대축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생활체육으로 하나된 우의를 다지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빛고을 최대 장애인생활체육 축제이다. /박희중 기자

일상 속 생활체육 활성화 건강 더하고 행복 나누다

광주시체육회, ‘종목 다변화’ 각종 대회 개최 지원 호평

‘건강한 시민과 함께 빛나는 광주’를 슬로건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매진해 온 광주시체육회가 연말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를 잇따라 개최해 동호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22-23일 문성고 체육관에서 열린 제13회 시장배 전국아마추어 바둑대회에는 유치부와 학생부부터 시니어부에 이르기까지 500여 명의 생활체육 바둑기사가들이 참가해 각자의 기량을 뽐냈다. 또 22일 상무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광주시장기 댄스스포츠대회에도 300명 넘는 동호인들이 참가해 인기를 실감케 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이달 광주시체육회 주최로 개최한 제37회 광주시민 체육대회를 비롯해 제7회 협회장배 패러글라이딩대회, 제9회 광주시장배 국무도대회, 제20회 광주시장기 배드민턴대회, 제8회 협회장기 축구대회, 2025 회장배 유도대회, 2025 협회장배 야구·소프트볼대회 등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며 ‘생활체육으로 행복한 광주 만들기’에 주력했다.

광주시체육회 임직원들은 매 대회 현장에 방문해 광주시체육회에서



23일 문성고 체육관에서 열린 제13회 시장배 전국아마추어 바둑대회 모습.

〈광주시체육회 제공〉

관리하는 체육시설물일 경우에는 편의시설 개보수를, 학교 체육시설 등 그밖의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책을 제시하며 동호인들이 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종목별 지역 대회를 확대해 지속 지원하겠다”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활기찬 도시 분위기를 조성해 스포츠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체육회는 12월 중에도 궁도, 스쿼시, 태권도, 검도, 빙상 등 다양한 종목의 지역 대회 개최를 지원해 동호인들이 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박희중 기자